1920년대 계급적·민족적 갈등의 표출양상

-최서해 원작 일본어소설을 중심으로-

박경수*·김순전**

bidangul@hanmail.net, sjkim77@chonnam.ac.kr

Contents

1. 서론
2. 최서해 일본어소설의 의미
3. '이상'과 '현실'의 괴리
4. 계급적·민족적 저항의 표출
5. 결론

Abstract

本論文は、1920年代の朝鮮で新傾向派文学の代表的な作家として知られた崔曙海の内面世界を把握して、その意識の流れによる階級的・民族的の葛藤が、日本語に翻訳されて日本文段に発表された次の3編の小説の中で、どんな様相を表わしてくるのかを考察するにある。崔曙海原作の日本語小説「飢餓と殺戮」、「紅焔」そして「二重」で感じることのできる共通的な心理は、日帝の植民政策による矛盾された社会構造に対する認識であり、ここで派生された内面的の葛藤の表出は、小説の背景によって、明らかに変化を見せている。これらを考慮にいれて作品をよく見れば、場所の移動は経済的な面に比例し、また、作家の意識が変化されるによって、階級も反転されて表れてくる。又このような意識の変化は、作品の背景によって、階級的・民族的の抵抗の表出も格段な差を見せている。このような点は、作家が彼の小説の中で、'搾取者対被搾取者'、'ブルジョア対無産者'の構図である階級の問題と、'支配國対殖民国'、'支配者対支配される者'の構造である民族の問題を取り扱いたかったし、ここに民族的な抵抗を盛り込もうとしたことが推量できよう。

しかし、曙海の小説は極限状況に追われた閉鎖的な個人の葛藤を、自分に圧迫を加えてくる他者や、不特定多数を通じてそれを解消させようとした点で、その限界性があると言えよう。これは曙海が実際の体験を重要視した結果、當時社会の構造に対する根本的な問題の認識に到達したにもかかわらず、その葛藤の解消方法を社会的な側面で表わすことができない狭小な<個人世界>で解決しようとした原因があったといえよう。このような世界観は彼の小説で敍事の制約をもたらす。のみならず、作中の主人公としてまわりの人を破局に同

* 전남대학교 대학원 일어일문학과 박사과정, 일본근현대문학 전공

** 교신저자, 전남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교수, 일본근현대문학 전공/ 일본문화연구센터 겸임연구원

行して、反動的人物としての個人にとどまるように作用してしまう結果をもたらす。これは社会的な順接を難しくするばかりでなく、民族に対する意識を‘民族対民族’にまで昇華させることができず、ついには時代と民族の悲劇を事件の展開だけで絶対的なことに受け入れる作家の限界を現わしていると言えよう。

Key Words : 理想, 現實認識, 階級, 民族的抵抗, 葛藤解消(이상, 현실인식, 계급, 민족적저항, 갈등해소)

1. 서론

문학은 작가의 ‘창조적 행위’이다. 문학에 있어서 그 창조적 행위란 ‘無’에서 ‘有’의 창조라기보다 작가 자신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겪었던 체험에 약간의 허구성을 동반한 것으로, 대체적으로 作家가 본 세계가 작품의 공간적 배경으로 설정되며, 작가의 말은 작품 속 등장인물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전달되기도 한다. 때문에 어느 특정한 작가나 작품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가의 직, 간접적 체험을 배제할 수 없으며, 그 활동시기와 작가가 몸담고 있는 공간적 사회적 배경은 참으로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일제강점 이후 정치적으로 폭압적인 무단정치가 표면적으로나마 다소 완화되었던 1920년대는 식민지인의 입장에서 보면 3·1운동의 여세를 몰아 민족적 저항이 요구되었던 때였다. 때마침 러시아혁명(1917)의 여파로 일어나게 된 사회주의 문학운동이 일본문단을 거쳐 조선 문단에 파급되면서 당시 만연되었던 퇴폐주의, 향락주의, 예술지상주의에 대응하여 노동자 농민 등 하층계층의 문학을 주장하며 신경향파의 새로운 맥을 형성하게 되었는데, 이 때 등장한 崔曙海[1]는 불과 10년도 되지 않는 짧은 창작기간 동안 60여 편의 단편소설을 발표하여 신경향파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로 급부상하게 된다.

최서해의 창작태도는 이미 자신의 일기에서 “…….나는 經驗 업는 것은 쓰지

1) 崔曙海(본명: 鶴松 1901~32)아명은 정곡이며, 본명은 학송(鶴松), 호는 설봉(雪峰), 설봉산인(雪峰山人), 풍년년(豊年年)이다. 1923년 ≪北鮮일일신문≫에 詩「자신」을 투고 하면서 필명으로 서해(曙海)를 사용한 이후, 본명 보다는 ‘최서해’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져 있어, 본고에서는 최서해로 통일하여 표기한다.

안으려고 한다."[2]고 밝힌 바 있어, 대부분의 작품이 자신의 이력과 밀접한 자전적 소설임을 말해준다. 특히 그의 소설세계의 본령이라 할 수 있는 間島를 배경으로 한 소설[3]에서는 1920년대의 모순된 사회구조 안에서 間島이주민들이 겪어야만 하는 물질적 정신적 고통이 사실적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상경하여 저널리즘에 종사한 이후 다소나마 생활의 안정을 찾은 후 발표한 작품에는 서해의 중산층 지식인을 향한 의식의 흐름이 잘 드러나 있다. 이들 작품 속에서 공통된 심리는 일제의 식민정책에 의한 모순된 사회구조에 대한 인식이며, 여기에서 파생되는 내적갈등의 표출이 소설의 배경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필자는 이러한 심리를 최서해 원작의 일본어소설에서 찾고자 한다.

최서해 소설이 일본어로 번역되어 일본 잡지에 발표된 것은, 작가의 직접적인 체험에 의한 그 리얼리티의 극적인 장면들이 소설이라는 형식으로 남아 일본어 해독자를 대상으로 오랜 기간 읽히게 됨으로써 일제의 식민지정책에 의한 식민지 조선인의 실상이 일본어권 독자들에게도 적나라하게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는 최서해의 특히 間島를 배경으로 한 소설에서 리얼리즘 형상화의 독특함에 치우쳐 있는 경향이 주를 이루었을 뿐, 일본어로 번역된 소설에 대한 의미를 찾는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본고는 최서해의 단편소설 중 일본어로 번역되어 일본문단에 소개된 소설 3편[4]에 중점을 두고 일본어소설로서의 의미를 찾아볼 것이며, 지금까지 신경향파의 대표주자로 인식되었던 원작자 최서해의 내면세계를 파악함은 물론, 그 의식의 흐름에 따른 계급적, 민족적 갈등이 이들 작품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여 표출되는지에 대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

2) 崔鶴松(1925)「?! ?! ?!」,「朝鮮文壇」, 1925. 4, p.19

3)「토혈」,「고국」,「탈출기」,「박돌의 죽음」,「기아와살륙」,「그 찰나」,「해돋이」,「만두」,「이역원혼」,「미치광이」,「돌아가는 날」,「홍염」,「폭풍우 시대」 등

4) 일본어로 소개된 최서해의 소설 3편「기아와 살륙(飢餓と殺戮)」,「홍염(紅焔)」,「이중(二重)」을 주 텍스트로 함에 있어, 출처는 2004년 오무라 마스오(大村益夫)・호테이 도시히로(布袋敏博)가 펴낸『近代朝鮮文学日本語作品集』(1901-1938) 創作篇1(「飢餓と殺戮」,「二重」), 그리고 創作篇3(「紅焔」)으로 하며, 주 텍스트 인용문의 페이지는「紅焔」의 경우 신문연재소설인 관계로『近代朝鮮文学日本語作品集』의 페이지로 하며,「飢餓と殺戮」,「二重」은 <표 1>의 번역소설이 게재된 잡지의 페이지로 한다.

2. 최서해 일본어소설의 의미

최서해 소설이 일본어로 발표된 시기는 1926년부터 1935년 이전으로, 정책적으로 일본어가 강요되었던 일제말기에 비하면 글쓰기에 대한 언어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던 시기이다. 이 시기는 일본에 체재한 경험이 있거나 일본 유학 경험이 있는 작가들의 신지식 또는 신문화에 대한 작가의 내적 욕구에 의하여 일본어 글쓰기를 하는 한편, 이미 한국문단에 발표했던 자신의 작품 혹은 타인의 작품을 일본어로 번역하여 일본문단에 소개하는 경우도 있었다.

최서해의 소설 중에서도 타인에 의하여 일본어로 번역되어 발표된 소설이 있는데, 「기아와살륙(飢餓と殺戮)」, 「홍염(紅焔)」, 그리고 「이중(二重)」이 이에 해당한다. 이 세편의 번역소설은 작품명이 모두 원작과 동일하며, 譯者가 분명한 작품이 있는가 하면, 분명치 않은 작품도 있다. 이러한 사항을 <표 1>로 정리해 보았다.

〈표 1〉 일본어로 번역된 최서해 소설의 서지사항

작품명	원 작		번 역				비 고
	발표시기	게재지	제 목	역 자	발표시기	게재지	
기아와살륙 (飢餓와殺戮)	1925.06	朝鮮文壇	飢餓と殺戮	林南山	1926. 9	朝鮮詩論	
홍염(紅焔)	1927.01	朝鮮文壇	紅 焔	미상	1935. 1~2	大阪毎日新聞 朝鮮版	
이중(二重)	1927.05	現代評論	二 重	미상	1927. 5	朝鮮人の言論と世相	* 발표 후 게재금지

「기아와살륙」, 「홍염」은 살길 찾아 間島로 이주한 식민지 하층민들의 일본과 중국의 이중지배공간에서의 간고한 삶을 다루었으며, 「이중(二重)」은 間島와는 사뭇 다른 일본 땅에서 중산층 식민지 지식인의 일상을 다룬 작품이다. 소설의 배경(장소) 이동에 따라 경제력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그에 따른 주인공의 의식의 변화가 두드러지며, 내면 갈등의 표출에 있어서도 무식한 하층민과 중산층 지식인의 그것은 현격한 차이를 나타낸다. 주목할 점은 이 3편의 소설은 모두 일제의 식민정책으로 인한 당시 사회구조의 모순을 고발하는 성격을 지닌다는

점이다.

1925년 6월 「朝鮮文壇」을 통하여 처음 발표한 「기아와살륙」은 1926년 9월 임남산(林南山)[5]에 의해 번역되어 일본 잡지 「朝鮮詩論」에 소개된 작품이다. 「기아와살륙」은 원작자가 생존해 있던 시기에 번역 발표된 작품이며, 내용은 원문과 동일하며, 표현 기법도 거의 원문에 가깝다. 다만 서두부분에서 원작의 경우 "그의 가슴은 한껏 두근거렸다."가 번역문에 삭제되어 있는 대신 "그보다도 산 임자가 중국인이란 것이 생각나자, 새삼스럽게 그의 가슴은 덜컥 내려앉았다. 조선인은 선량하지만 억압당하고 있다. 중국인 땅이기 때문에, 그놈들의 것을 훔쳐가기 때문에……"[6] 라는 내용으로 교체되어 있어, 남의 땅에 빌붙어 사는 주인공의 불안한 심리를 원작에 비해 훨씬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또 원작 소설 말미에서 주인공 내면심리의 극단적인 표출 부분인 "모두 죽여라! 이놈의 세상을 부시자! 복마전 같은 이놈의 세상을 부시자! 모두 죽여라!"와, "이 악마같은 놈들 다 죽인다!" 는 "--이하 3행 삭제(以下三行削除)--" 또는 "--이하 1행 삭제(以下一行削除)--" 로 처리되어 있다. 당시 사회구조에 대한 극단적인 불만의 표출과 파괴적인 언행묘사는 당연히 검열의 대상이 된 듯하다.

1927년 1월 「朝鮮文壇」에 첫 발표된 「홍염」은, 1935년 ≪大阪每日新聞≫朝鮮版(1~2월)에 총 10회에 걸쳐 일본어로 번역 연재되어 일본에 소개되었는데, 역자는 미상이다. 「홍염」의 번역 소개된 시점이 1935년으로, 원작 발표시기와 8년이라는 시간차를 두고 있는 것과 그 시기가 원작자 최서해의 사후인 점은 고려할만 하다. 서술상 약간의 변화는 있으나 내용은 원문과 거의 비슷하다. 함경도 사투리를 그대로 사용하여(チヤングヂエ(丹那) = 주인), ニデイ(お前) = 너, 너희 등) 원작의 묘미를 살리려 했던 점이 특이하다.

그리고 「二重」은 1927년 5월 「現代評論」에 발표한 이후 바로 게재금지 된

---

5) 林南山(생몰년 미상)은 당시 동경에서 활동하는 조선인 문인(신행연, 윤복진, 김동진, 주태도, 이파촌, 함효영, 김훤, 신호균, 유치진, 마해송, 변성열, 홍선 등)들로 구성된 조선문인사 소속 문인 중의 한 사람인 듯하다. (≪동아일보≫1934.5.16일자 참고) 본 텍스트의 출처에서 살펴본바 최서해의 「기아와살륙」, 현진건의 「피아노」 등 소설의 일본어 번역자로 기록되어 있다.

6) それよりもつと山の地主が、支那人であることを思ひ出すと、彼の胸は、今更のやうにギクツとした。朝鮮人は、善くてもおさえ付けられてゐる。この支那人の土地から、彼奴等のものを盗むのであるから…… (번역 필자 이하 동)

작품이다. 내용상 일본인과 직접적인 대립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인 듯하다. 때문에 동년 10월 일본잡지 「朝鮮人の言論と世相」에 번역되어 소개된 「二重」 역시 번역자 미상이다. 소설의 내용 대부분이 검열에 의해 삭제된 듯, 全文이 약 3페이지 정도에 불과하다. 이나마 토막글로 연결되어 있어 소설의 흐름이 도중에 끊기는 점, 그리고 원작을 찾을 수 없는 관계로 내용면에서 원작과의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최서해의 중기 작품의 또 다른 특질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써 상당한 가치가 있다.

최서해 소설의 특징은 대부분이 몸소 체험한 자신의 이력과의 관계성 때문에 당시 사회구조에 대한 고발의 성격을 지닌다. 특히 間島를 배경으로 한 「기아와 살륙」, 「홍염」은 일제의 식민정책에 의하여 쫓기다시피 호구지책으로 찾아든 만주에서의 삶 가운데 일본과 중국의 이중지배를 받는 식민자 입장에서, 그리고 「이중」에서는 조선인 중산층 지식인이 일본 땅에서 직접 겪을 수밖에 없는 일본인과의 관계에서 견디기 힘든 울분을 고발한 성격을 지닌다.

최서해는 근대 초창기 여타 작가의 출신성분에 비해 최저생활을 영위했던 삶의 내력과 변변치 못한 배움(초등학교 졸업, 또는 중학 중퇴설이 있음)으로 당시 작가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존재였다. 때문에 작품 속 주인공들이 겪는 가난, 설움, 불행, 고통이 그대로 독자들의 가슴에 와 닿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상과 항거 또는 투쟁이 설득력을 지니며, 격렬한 행동으로 나아가는 그들에 대한 동정과 지지를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최서해 소설이 일본어로 번역되어 일본문단에 발표된 것은 당시 일제의 식민지 정책에 의한 조선 민중들의 실상이 일본인들에게 인식되어지는 계기가 됨은 물론, 비록 고립된 개인차원에서나마 일제의 식민정책에 대한 민족적 저항이 표출된 셈이라 할 수 있다.

3. '이상'과 '현실'의 괴리

합병 전후와 최서해의 작품 활동기인 1920년대는 일제의 식민정책에 따른 조선인의 만주이민자 수효가 급증한 시기였다. 한국인의 이민사 연구자 이구홍(1979)은 당시 조선인의 만주 이주동기를 ①일본인들의 한국농토 매수로 한국

농민들 대다수가 농토를 잃었다는 점 ②지리적 여건으로 間島는 토질이 양호하고 땅값이 비교적 저렴했다는 점 ③한일합방으로 이에 불만을 품은 동포들의 정치적 피난처 또는 일본 관헌들의 극심한 횡포에 저항을 느낀 사람들의 도피성 이주 ④저렴한 한국인 노동력을 필요로 한 일본기업인들의 유인 ⑤화전민의 금지로 생계를 잃은 사람들이 농토를 찾아 이주했던 것[7]으로 분류하여 예로 들었다. 이는 다시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그 하나는 지식인층의 정치적인 망명, 다른 하나는 농토를 잃은 농민들의 호구지책에 의한 이주이다. 여기서 후자는 일제의 토지수탈정책과 산미증식정책에 기인한다.

일제의 토지수탈은 일본인 자본가들과 동양척식회사에 의하여 이미 합병이전부터 행해지고 있었다. 일본인 자본가들의 고리대금을 통한 농토매수와 1908년 <동양척식회사>를 앞세운 일제의 본격적인 토지약탈에 의하여 조선농민들은 대다수가 농토를 잃을 수밖에 없었고, 어쩔 수없이 일본인 소유의 농토에서 소작하는 신세로 전락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동척>의 토지수탈과 고율의 소작료와 이자, 게다가 지주나 마름의 착취는 농민들을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하여 거의 쫓겨나다시피 고향을 버릴 수밖에 없는 형국이 된 것이다.

또한 3·1운동 이후 일제는 자국의 공업화를 위해 조선을 식량기지화 할 계획으로 산미증식정책을 강행하여 생산된 쌀을 약탈하다시피 일본시장으로 반출하였다. 그 결과 조선 농민은 '쌀을 팔아 조를 사들이는 꼴'이 되었는데, 그나마 高利의 소작료 때문에 잡곡까지 수탈의 대상이 되어, 조선농민들은 살길을 찾아 정든 땅을 등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실로 1924~1925년 1년간의 이농인구가 15만여 명에 달하였다는 것이 이를 설명해 주며, 이들은 도시의 잠재실업群, 일본밀항, 화전민, 또는 만주이주로 나타난다.[8]

이러한 배경에서 쫓기다 시피 고향을 등진 이주민들은 그 와중에서도 間島 땅에서 펼쳐질 새 생활에 대한 '희망'과 나름대로의 '이상'을 지니고 있었다. 그것을 서해의 작품 속에서 찾아보겠다.

피끓는 청춘인 운심이는 그저 있지 않았다. 그는 독립군에 뛰어들었다. 배낭을

7) 李求弘(1979)『韓国移民史』, 中央日報 · 東洋放送, pp.21-22
8) 이원재(1966)「韓国에 있어서의 労動運動」「창작과 비평」 가을호, 交友出版社, p.462

지고 총을 메었다. 그리고 그는 늘 리상을 품고 울었다.[9] (「고국」)

내가 고향을 떠나 간도로 간 것은 너무도 절박한 생활에서 시들은 몸이 새 힘을 얻을가 하여 새 희망을 품고 새 세계를 동경하여 떠난 것도 군이 아는 사실이다. -- 간도는 천부금탕이다. 기름진 땅이 흔하여 어디를 가든지 농사를 지을수 있고 농사를 잘 지으면 쌀도 흔할 것이다. 삼림이 많으니 나무걱정도 될것이 없다. 농사를 지어서 배불리 먹고 뜨뜻이 지내자 그리고 깨끗한 초가나 지어놓고 글도 읽고 무지한 농민들을 가르쳐서 리상촌을 건설하리라. 이렇게 하면 간도의 황무지를 개척할수도 있다. -- 이것이 간도 갈 때의 내 머릿속에 그리였던 리상이였다.[10] (「탈출기」)

아아 내가 어째서 주저하고 있는가? <중략>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모든 인류가 다같이 살아갈 운동에 몸을 바치자![11] (「飢餓と殺戮」, p.11)

언제나 이놈의 소작인 노릇을 면하여볼까? 경기도서도 소작인 십년에 겨죽만 먹다가 그것마저 자유롭지 못하여 딸 하나 앞세우고 男負女戴로 머나먼 이 西間島까지 흘러와보니, 여기서도 그네를 맞아주는 것은 여전히 소작살이다.[12] (「紅焔」, p.257)

이처럼 「고국」의 '운심'은 "나라의 독립"이라는 이상을 품고 독립군에 뛰어들었으며, 「탈출기」의 '나'는 "천부금탕 기름진 땅을 개척하여" 의식주를 해결한 후, 이상촌을 건설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기아와살륙」의 '경수'는 "모든 인류가 다 같이 살아갈 운동"에 몸을 바치려고 하였고, 「홍염」의 '문서방'은 지긋지긋한 소작인 생활을 면해보고자 하는 나름대로의 이상을 품고 間島로 이주하였다.

이들에게 이상실현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무엇보다도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 즉 의식주의 해결이었다. 평생을 몸 부친 고향땅을 떠

9) 최서해(1987) 「故国(1924.10)」『최서해단편소설집』, 문예출판사(평양), pp.29-30

10) 최서해(1987) 「탈출기(1925.01)」, 위의 책, p.50

11) あゝ, どうして俺は躊躇して居るのだらう? <略> 彼れ此れ迷ふことなく、凡ての人類が、皆一緒に、生きて行く運動に、身をさゝげようではないか。

12) いつになつたら小作人の境涯から抜け出せるやら--。京畿道でも小作人十年に、やつと糠粥でロスギをしてゐたのが、それさへまゝならず、娘一人を先の立て、夫婦してはるばる西間島まで琉れて見れば、それでも待ち受けてゐるのは同じ小作暮らし、

날 때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은, 비록 남의 땅 이지만 '기름진 땅'과 '울창한 삼림'이 많은 間島 땅에서 만큼은 적어도 배고픔과 추위는 면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 그들의 공통된 생각이었다. 그러나 間島 이주 후 주인공들이 가장 먼저 부딪친 현실은 착취의 현장이었다. 돈이 없어 단 한 평의 땅도 취할 수 없는 이주민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도조나 타조로 중국인의 밭을 얻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방식으로 농사를 지어봤자 1년 동안 꾸어먹은 양식 빚을 갚으면 남는 것이 없었다. 또 중국인의 소작을 한다 하여도 소작의 결과는 소작료를 주고나면 '일 년 양식 빚'도 갚을 수 없게 되는 참담한 현실 앞에서 그들은 감당할 수 없는 이상세계의 높은 벽을 실감하게 된다.

그들이 꿈꾸었던 이상세계와 참담한 현실과의 괴리는 결국 환멸을 초래하게 되어 무기력한 패배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결국 「고국」의 '운심'은 도배장이의 삶으로 전락하였고, 「탈출기」의 '나'는 이상실현을 접고 현실에서 도피하게 된다.

서해소설의 결말 부분의 특징은 박영희에 의해 "허무적이며 절망적이며 개인적"이라 지적된 바 있는데, 이처럼 극도의 궁핍선상에 놓인 고립된 등장인물의 파편적인 삶은 현실이 지니는 모순의 핵심과 만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출구조차 찾을 수 없다. 미래에 대한 희망의 부재는 사회와의 만남을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 이상세계와의 통로마저 차단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때문에 주인공은 폐쇄적인 공간 속에서 환상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만다.

> 어둑한 방구석에서 몸서리치도록 무서운 악마들이 튀어나와서 세상을 깡그리 태워버리려는 듯이 벌건 불길을 활활 내뿜는다. 그 불은 집을 불사르고 어머니를, 아내를, 학실을, 그리고 자기까지 태워버리려고 확확 달려든다. <중략> 이런 환상이 그의 눈앞에서 활동사진처럼 비춰질 때 "야아 부숴라! 모두 부숴버려라!" 소리를 지르면서 그는 벌떡 일어섰다.[13] (「飢餓と殺戮」, p.22)

---

13) 暗い部屋の隅々からは、戦慄をおぼえるやうな恐ろしい悪魔か飛び出して来て、世界を、悉く焼き尽さねば置かんと云うやうに、真赤な燃え盛る焔を、パーパツと吹き出すのであつた。その火は家を燃やし、母親を、妻を、鶴実を、そして自分まで焼き尽くさうと、ドンドン攻めて来るのだつた。<略>こんな幻想が、彼の眼前に、フイルムのやうに現はれると 「やつつけろ、皆やつつけて了へ！」と叫びながら、パーツと跳ね起きるのであつた。

주인공의 다음 행동은 이미 理性을 벗어난 행동일 수밖에 없다. 결국 「기아와살륙」의 '경수'는 생활고에 지쳐 가족들을 모두 죽이고 닥치는 대로 테러를 감행하는 것으로 종결된다. 이렇듯 사회로부터 소외된 고립적인 인물의 성격은 「홍염」에서도 찾을 수 있다. 농사 빚 때문에 間島로 이주해 온지 3년 만에 중국인 지주에게 하나뿐인 딸을 빼앗기고, 그 홧병으로 인하여 아내마저 잃었을 때 문서방에게서 더 이상 삶의 의미는 소멸되어 버리고 만다. 문서방의 세계 또한 폐쇄적인 공간 속에 갇혀 고립되게 되고, 자아와 이상세계의 현격한 부조화에 따른 억눌린 감정은 마침내 폭발하게 되며 이는 극단적인 방화와 살인으로 표출된다.

> 동풍이 불 때면 불기둥은 서편으로 뻗어가고, 서풍으로 돌면 불기둥은 동으로 쓸려서, 어마어마한 소리를 내면서 검은 연기를 뿜다가도 동서풍이 맞부닥치면 '불의 신'의 붉은 혓발은 하늘하늘 공중으로 타올라서, 얼어붙은 별 -- 억만 년 변함이 없을것 같던 별까지 녹아내릴 듯이 검은 연기는 하늘을 덮고 무시무시한 붉은 불빛은 깜깜하던 골짜기를 환히 비추어 어둠을 기회로 모여들었던 온갖 요귀를 몰아내는 것처럼 보인다. 불을 질러놓고 뒷산 숲속에 숨어서 내려다보던 그 그림자 -- 딸과 아내를 모두 잃은 문서방은 "하하하하." 시원스럽게 웃고 나서 한 손으로 허리춤에 찼던 도끼를 만져보았다.[14] (「紅焰, p.267)

문서방이 타오르는 불속에서 보는 환상은 그 동안 억눌려왔던 감정에 대한 카타르시스 효과와 함께 이어질 행동을 예고한다. 허리춤에 차고 간 도끼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처럼 사회로부터 소외된 고립적인 인물과 폐쇄적인 배경을 설정하여 사회와의 갈등을 풀어 나가려고 하지만, 이와 같은 고립성이나 이를 더욱 강화시키는 극도의 궁핍상황은 그들의 삶을 파편적이며 폐쇄적으로 이끌고 갈 뿐, 사회가 지니는 구조적 모순의 핵심과 만날 수 없게 된다. 빈궁 저변

14) 風が東から吹くときは火の字は西にひろがり、西から吹きつけると東へ延びて、凄じい音をさせながら、黒い煙を噴いていたのが、西東からの挟み打ちに風を受けると火の神の紅い舌は、ゆらゆらと空へ延びて、凍りついた星一一億万年のさきまで変わらぬとおもわれたその星までも溶かさんばかりに、黒煙は空を蔽ひ、物凄い焔は、暗く閉さらた谷々に照り映えて、闇の中にうごめく諸々の妖鬼を追ひちらすかに見える。火防けをして裏山の林に隠れたその人影一一娘と妻を、もろともに失つた文書房は「ハヽヽヽ」と、さも心地よげにうち笑うと、片手で腰にたばさんだ手斧を撫でさすつた。

에 깔려있는 인간은 언제나 그 원인에 대하여 저항하기 마련이며, 그러한 인간이 그 상층구조를 향해 저항한다는 것은 사상적인 설명이 붙기 전부터 이미 본능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필연적인 현상[15]으로, 주인공들의 성격이 이와 같이 설정되었기에, 소설의 공간 또한 폐쇄적일 수밖에 없으며, 그 공간의 폐쇄성은 주인공의 사고와 행위를 극단적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間島는 당시 조선 하층민이 힘든 삶의 무게에 짓눌릴 때마다 막연히 떠올렸던 추상적인 땅이었으며, 도저히 살 수 없어 쫓겨나다시피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을 때 택하게 되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최후의 땅이었다. 그 최후의 땅에서 펼치고자 하는 식민지 하층민의 이상은 지극히 단순하고 초보적인 것, 즉 배고픔과 추위걱정 안하는 것 그리고 병들었을 때 약 한 첩이나마 지을 수 있는 경제력 정도였다. 그러나 그 초보적인 이상세계에 대한 높은 벽은 당시 출구를 찾을 수 없는 식민지인의 현실을 대변하기도 한다. 인간의 삶에서 가장 최소한의 것인 의식주마저 해결되지 못한 비참한 현실에서 이들은 유토피아에의 접근은 커녕 현격한 괴리감만 느끼고 만 것이다.

4. 계급적 · 민족적 저항의 표출

4.1. 계급과 민족의 인식

일제의 조선에 대한 치밀하고 조직적인 식민정책은 점진적으로 조선인들을 間島 땅으로 내모는 결과로 나타난다. 실제로 일제는 일본인을 조선에 이주시키는 대신, 조선인을 만주에 이주시킨 후에 만주의 토지를 조선인으로 하여금 매수하게 하는 것을 일제가 만주 점령의 한 방법으로 이용[16]하고 있었으며, 조선이주민이 만주의 일정한 지역에 정착하여 마을을 형성하게 되면 일제는 조선인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영사관 또는 영사관 경찰을 상주시키고, 이주 조선농민과 중국농민을 의도적으로 충돌하게끔 하여 양 민족 사이에 분쟁을 일으키게

15) 김순전(1998)『한일근대소설의 비교문학적 연구』, 태학사, p.256

16) 松村高夫(1972)「在満朝鮮人移民政策の形成」「日本帝国主義下の満洲」、 満洲史研究会編、東京、pp.226-228

하여 그것을 통하여 일본의 만주침략의 구실[17]로 삼아 정책에 이용하기도 했다. 당시 "봉천행 열차에는 살길을 찾아 男負女戴하여 국경을 넘는 조선인들로 입추의 여지가 없었다."[18]는 신문기사가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듯이, 농토를 잃은 농민들과 도시빈민들을 비롯한 일제의 횡포에 저항을 느낀 사람들의 행렬로 만주 이민자는 증가일로에 있었다. 그러나 만주로 이주 했다고 해서 조선인들이 일제의 감시망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 일제는 만주를 둘러싸고 중국과 헤게모니(hegemony) 다툼을 벌이면서 재만(在滿) 조선인들을 감시하고 억압했으며,[19] 중국 또한 조선인을 일본의 앞잡이로 여겨 압박을 가하게 되어, 조선 이주민들은 이중의 폭압과 횡포에 시달렸다. 기름진 땅을 찾아 만주로 이주한 조선농민의 대다수는 중국인 지주들의 農奴와 다름없었다. 이러한 현실은 「해돋이」에 잘 묘사되어 있다.

> 조선 사람들은 어느 골짜기나 없는 데가 없었다. <중략> 거개 쓰러져 가는 초가집에서 중국 사람의 소작인으로 일평생을 지낸다. 간혹 전지를 가진 사람이 있으나 그것은 쌀에 뉘만 못하였다. 그네들 가운데는 자기의 딸과 중국 사람의 전지와 바꾸는 이도 있다. 그네들은 일본과 중국의 이중법률의 지배를 받는다. 아무런 힘없는 그네들은 두 나라 틈에서 참혹한 유린을 받고 있다. 그래도 어디 가서 호소할 곳이 없다.[20]

1915년 中・日 간에 맺어진 '남만주 및 동부내몽고에 관한 조약 및 교환공문'에 의하면 재만(在滿) 조선인에 관한 사건은 중국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일본 영사관에서 재판 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상은 인용문에서 말해주듯이 재만 조선인들의 실상은 '일본과 중국의 이중 법률의 지배'를 받으며 참혹한 유린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중국 땅에서 살고 있으니 중국법률의 지배를 받아야 하고, 일본사람이기 때문에 일본 법률을 따라야 했다. 그러나 이 두 법률 가운데 어느 것도 조선인을 보호해줄만한 법은 없었다. 형식적으로 보자면 재만 조

17) 李勳求(1932)『滿洲와 朝鮮人』, 平壤, pp.241-243 (박영석(1972)「日帝下의 在滿韓人 迫害問題」「아세아연구」,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p.220 에서 재인용)
18) ≪중외일보≫,「放逐되는 민중의 비참상」, 1926.3.24일자.
19) 하정일(2005)「민족과 계급의 변증법」「한국근대문학연구」제11호, 한국근대문학회 편, p.222
20) 최서해(1996)「해돋이」『한국현대대표소설선2』, 창작과비평사, p.38

선인들은 일본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했던 것이다.[21] 조선인은 법적으로는 '일본국민'이었지만 자국민 보호측면에서 보면 전혀 일본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중 지배공간을 배경으로 한 서해의 작품을 보면 이른바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 라는 문제가 전제되어있다. 말하자면 '약탈자 대 희생자', 즉 '유산자 대 무산자' 라는 계급대립의 구도로 소설이 진행된다. 「기아와살륙」에서는 의원과 약국주인이 뚜렷한 반동인물로 등장하여 유산자와 무산자의 이항대립구도가 된다. 아내가 다 죽게 되어 의원을 찾아가 통사정하지만 번번이 진찰마저 거절하다가, 일 년간 머슴살이 하겠다는 계약서를 받고서야 마지못해 침을 놓아주고 처방전 한 장 써주는 의원과, 약은 지어줄 생각도 하지 않고 돈 계산부터 하는 약국주인은 주인공의 착취의 대상이 되어 주인공을 더욱 궁지로 몰아가는 구조적인 장치가 된다.

> 약국주인은 아무 말 없이 처방전을 손에 들고 수판을 달그락 달그락 퉁기더니 "돈 가지고 왔소?" 하면서 경수를 쳐다보았다. 경수의 낯은 화끈 달아올랐다. "돈은 낼 드릴테니 먼저 약 좀 지어 주시오." 경수는 간수 앞에서 면회를 청하는 죄수처럼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말했다. 약국주인은 얼굴을 찡그리면서 안쪽으로 사라졌다. 경수는 모든 설움이 일시에 복받쳐서 눈물로 앞이 캄캄했다. 일종의 분노도 없지 않았다. 세상이 너무도 자기를 학대하는 것 같았다. 그것이 새삼스럽게 슬프고 쓰리고 원통했다.[22] (「飢餓と殺戮」, p.16)

처음에는 삶에 대한 소박한 염원을 안고 그것을 실현해 보려고 갖은 고생과 모욕과 굶주림을 참아 왔지만, 갈수록 그 고통과 불행이 중첩되어 가면서 비로

---

21) 하정일(2005) 「민족과 계급의 변증법」, 앞의 책, p.223

22) 薬局の主人は、黙々として、処方箋を手に取つて、算盤をパチパチはじいて見てから。「お金は持つて来たらうね?」と云いながら、慶秀の顔を窺いて見た。慶秀の顔は、急にほてつた。「お金な明日持つて参りますから相済みませんが、薬を先きにお願ひ致したいのですが」慶秀は看守の前で、面会を求むる囚人の声のやうに細い声で云うのであつた。薬局の主人は、唯黙つて、顔をしかめて、奥の方へ姿を消した。慶秀は凡ての悲しみが一時に込み上げて来て、涙を一ぱい堪えた眼には何も見えなかつた。一種の憤怒も含まつてないことはなかつた。世間はどうしてこんなに自分と云うものを虐待するのだらうかとさえ思はれてならなかつた。それが、今更のやうに、苦しい、悲しい、怨めしいものとなつて来るのだつた。

소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모순을 깨닫기 시작한다. 그것은 사회구조 특히 경제적인 면에서 자각한 결과로 '있는 자와 없는 자' 간의 모순, '착취자와 피착취자' 간의 모순, 즉 돈에 의하여 빚어지는 온갖 사회악에 대한 작가의 냉철한 인식이다. 최서해의 이러한 사회구조에 대한 자각은 間島를 배경으로 한 대부분의 작품 속에서 개인적인 원한과 피해의식에 대한 보복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이는 당시 검열 문제도 있었겠지만 체험적인 면에 치중해 있는 작가의 창작관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창작관이 보다 명확하게 드러난 작품이 바로 「홍염」이다. 「홍염」은 경제적인 사회구조의 축소판인 지주(중국인 殷家)와 소작인(조선인 문서방)의 관계를 기본적 계급관계로 규정하면서 서사를 풀어나간다. 계급적 갈등이 축을 이루는 까닭은 지주 / 소작 관계가 착취의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빚 대신 딸을 빼앗아 가는 '인가(殷家)[23]'의 행태를 '되놈'의 반인륜적 관습과 연계시키면서 민족적 갈등이 본격화 되고, 민족적 갈등이 중첩되면서 문제는 증폭된다.

한 평의 땅도 없는 문서방은 중국인 지주 '인가'에게 '도조'나 '타조'로 양식을 꾸어먹고 농사를 짓지만, 죽어라 일해 봤자 가을 추수는 빚 갚는데 다 들어가 버리니 빚은 줄어들기는커녕 해마다 누적되어 간다. 게다가 음흉한 '인가'는 문서방의 딸 용례를 염두에 두고 유독 심하게 빚 독촉을 한다.

> "문서방! 올해두 도저히 안되겄소?" 인가는 문서방의 인사는 듣는둥 마는둥 딴전을 치면서 담뱃대를 꺼내어 쌈지에 넣는다. "허허 어제두 말했지만 글쎄 곡식이 안되서 도저히 방법이 없구려" "도리 없소 어떻게 할까? 흉작, 흉작이고 뭐고 내 알바 아니오. 오늘은 모두 내놔. 알겠어?" 인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장구재(주인)도 알겄지만 죄 흉년이라 얼마 되지두 않은 이것(수확물)을 모두 드리면 우린 겨울에 굶어죽소. "내년에는 꼭 갚아드릴게 올만 참아주오!" 그런 문서방의 눈에는 애원하는 빛이 흘렀다. "안되우! 안돼! 모두 내놔! 그래도 많이많이 부족이오!" "부족이 되두 하는 수 없지. 없는 걸, 내고 싶어도 …….도저히……휴." "어째서 없소! 응. 늬듸(당신) 어째 없냔 말이오! 말해! 내 쌀. 내 소금이다. 내 강

23) 중국인 지주 '殷家'는 '은가'가 아닌 '인가'로 번역하였다. '殷'의 중국식 발음이 'yin'으로, 우리말의 '인'에 가까울뿐더러, 최서해가 作한 원문에서도 중국인지주 이름이 '인가'로 되어 있어 이를 따르기로 하였다.

냉이…… 늬듸 입이(입을 가리키면서) 다 안 먹었소? 어째 없소. 응?" 인가는 핏대를 세우고 고래고래 소리질렀다. 문서방은 아무 대답할 기력조차 없었다.[24] (「紅焰」, pp.256~257)

첫해의 수확은 변변찮았고, 이듬해는 흉작이었던 터라 소작료는커녕 꾸어다 먹은 식량마저 갚지 못했던 문서방은 지주에게 호되게 매까지 맞고서 겨우 금년으로 미루었던 처지였는데 금년마저 흉년이 들자 빚은 누적될 수밖에 없었다.

滿洲는 극동의 무법지대나 다름없어서 중국인 지주가 소작인에게 私刑을 가해도 별반 처벌은 되지 않았다.[25] 게다가 생명에 대한 위협까지 감수해야 하는 악조건 속에서도 소작을 얻기 위해서는 아내나 딸을 볼모로 하는 중국식 계약도 만연하고 있었다. 중국과 일본 양국의 지배는 받으나 보호는 받지 못하는 이주민의 비참상은 조선에 남아있는 농민이나 별반 다름없었다. 빚 대신 문서방의 아내를 데려가려는데, 딸 용례가 뛰쳐나와 어머니를 붙잡고 울부짖자 '인가'는 기다렸다는 듯이 용례를 덥석 끌고 가버린다.

"아이구 어머니! 어머니를……. 어머니……왜 잡아가오?" 용례는 어머니의 손목을 잡은 중국인의 손목을 물어뜯었다. 용례를 보자, 인가는 아내를 놓고 용례의 손목을 잡았다. "이 도둑놈아! 놔라! 이것 놔! 아이구 아버지! 엄마!" 우악스런 인가의 손에 붙잡혀 질질 끌려가는 힘없고 가냘픈 처녀는 몸부림을 치면서 발악을 하였다. "용례, 용례야! 용례야! 어디간단 말이냐 용례야!" "너를…너를…… 머나먼 이곳까지 데리고 와서 짐승같은 놈에게……" 문서방의 내외는 미친 듯이 뒤를 쫓

24) "文書房！ドシテモ、今年、ダメアルカ？"文書房のあいさつは聞かぬ態で殷は煙管を取出すとカマスの口に突込んだ。"このふもいうた通りで、この不作ぢや、とうにも、しようがありめへんね" "シヨウガナイ、ドウスルカ？不作、不作ナイ、ワタシ関係ナイ。今日はミナ返ス、ヨロシイ" 殷はその場にどかりと腰を据ゑた。"来年は間違ひないさかいに今年だけ、一ツ、こらへてくんなされ。チヤングヂエ(丹那)も知つてなさろが、全くこの不作ぢや、どにもなりめへんね。わづかこればつかしのもの(取穫物)あげてしもたら、冬は饑死せんならんさかいーたのんます来年までこらへてくんなされ" さういふ文書房の目には哀願の色があつた。"ダメ、ダメ、ミナ出ス、ソレマダ足リナイ" "そやかで、あんた、どないにしたら、えゝかいな。無いもん出せいうたかで、無理だすがな" "ナゼ、ナイアルカ！ニデイ(お前)ナゼナイアルカ！ハナスヨロシイ。ワタシ米、ワタシ塩、ワタシドウモロコシ、ニデイロ(口を指しながら)ミナ、ミナ食ベタ。ナゼ、ナイアルカ！" 殷は、青筋立てゝ、わめきつゞけた、文書房は、もう何も答へる気力がなかつた。

25) 임종국(1974)『韓国文学의 社会史』, 정음사, pp.128-129

아갔다.[26] (「紅焰」, p.259)

문서방은 마침내 용례를 '인가'에게 빼앗기게 된다. 이 일로 아내가 몸져눕게 되자 문서방은 죽기 전에 아내에게 용례의 얼굴한번이나마 보게 해 주려고 번번이 문전박대 당하면서도 '인가'를 찾아가기를 반복하지만 단 한 번도 만나게 해주지 않는다.

"…….길지는 않을걸세. 마지막 죽어가는데 철천지한이나 풀어야 하잖겠소. <중략> 얼굴이라도 한 번 보게 해주게나! 제발 부탁이네……" "무어라 통사정해도 안 되우! 우리집이(용례) 잠시라도 밖에 나가는거 재미없소." 배짱을 부리는 인가의 모습은 마치 전당포 주인과 같은 태도였다. 문서방의 가슴은 초조함, 안타까움, 서글픔에 확 쥐어뜯어놓고 싶었다. 화가 목까지 치밀었다. 차라리 부뚜막에 있는 낫을 쳐들고 인가의 그 불뚝 튀어나온 배를 단숨에 콱 찔러버릴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그래도 행여나 하는 바램을 버리지 못하고 억지로 치밀어 오르는 분함을 참아냈다. "그러지 말고 제발 보여주오! 한번만……한번만……그럼 마누라를 데리구 올까? 아니 바람을 쏘여서는 안되는데…… 어차피 죽을텐데…… 죽어두 원이나 없게…… 내가 데리고 올게 얼굴 한번만이라도 보여주오……". <중략> 인가는 문서방을 어서 가라고 재촉하는 듯 먼저 자리를 떴다.[27] (「紅焰」, pp.261~262)

---

26) "あれ！おかやん！おかやんを…… おかやんを…….何で連れてゆくのや……"龍礼は、母の手を捉へた支那人の手首に噛みついた。龍礼を見ると殷は、妻を離して龍礼の手首を握つた。"このドンチクシヨウ！離セ！離セ！""あれい……おとう！おかん！" 荒れくれた殷の手に捉へられて塵のやうに曳きずられてゆくかよはい乙女は死物狂ひに身悶えながら声をふり絞つて叫ぶ。"おお……龍よ！龍よ！.龍よ！どこ行く龍よ！" "お前を…….お前を…….はるばるこゝまで連れて来てからに、畜生のゑじきにしようとは……" 文書房夫婦は、気も狂はんばかりに後を追うた。

27) "…….もう、長いこつちやな…….死際にせめての慈悲や心残りを晴らしてやつておくれいな。<略> 顔でも見せてくれんかいな、たのんまつさアな……""ソレ何ベン言ツテモダメアルナワタシ妻、ウチ少シデモ出ル、ソレオモシロイナイ."図太く構へる殷のその様子は、まるで質屋の因業親父とつた拾好だ。文書房の胸のうちは、もどかしさ、切なさ、さてはうらかなしさで、騒きむしられる思ひだ、憤りがムクムクと首を擡げる。いつそにと、そこにある利鎌を振り上げて、殷の、そのふくれ上つた脾腹を、一と思ひにブスリと突き裂いてやらうかと、そんな気さへするのだが、それでも、もしやの空頼みが棄て切れず、無理にも腹の虫を押へた。"そないにいはんとな……、一目でえゝのや…….一目でそんなら連れてこうか、婢を……、風に当ると悪いし……もうえゝ、どうせ死ぬのや死ぬなら、いつし願いでも叶い一目ちよつくら顔だけても見せんかいな……." <略> 殷は、早くかへれと促すように、自分から座を立つた。

결국 용례를 부르다가 눈도 감지 못한 채 문서방댁은 피를 토하고 죽는다. 빚 대신 딸을 빼앗기고 그로인해 아내마저 죽게 된 극한상황은 문서방을 고립된 세계로 이끌며, 결국 극단적인 행동을 재촉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기아와살륙」, 「홍염」은 작가의 사회적, 정치적 견해를 피력하는 경향문학인 셈이며, 이는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前단계적인 특성을 지닌다. 때문에 주인공 문서방에게서 민족의식을 찾을 수 있었다고 진단하였던 프로 문학가들에 의하여 그것을 확대해석하여 집단의식화 시키고 행동화 시키는 선전효과를 삼으려 하였다. 그러나 서해가 지닌 계급의식은 반드시 유산, 무산을 구분하는 계급의식이라기보다는 오직 자기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고통을 주는 자에게 느끼는 본능적 저항의식, 즉 피압박자로서 압박자에 대한 계급의식이었을 것이다.

間島에서의 체험은 계급문제와 민족문제를 동시에 담아내는 소설적 경지를 이루어내었던 원동력이 되었다. 때문에 박영희와 김기진 등이 "당시 평론가들이 방향전환기 이후의 첫 수확이라고 호평을 한 작품"[28] 또는 "自然發生期에 있어서 가장 우리의 取할만한 作品"[29]이라 격찬하며 서해를 프로문학의 전형으로 내세우고자 하였다. 그러나 서해는 KARF가입으로 프로문학 작가의 대열에 합류하였으면서도, 이데올로기의 비판적 사고 부족으로 이념의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KARF를 탈퇴한다. 이 같은 계급에 대한 인식은 서해가 朝鮮文壇社에 입사하고 서울에 정착하게 되면서 반전되는 양상을 보인다. 저널리즘에 종사한 이후 서해는 소시민적인 삶으로 일관했으며, 이러한 소시민적 체험은 자전적 작품 「갈등(葛藤)」[30]에서 '상전 대 어멈'이라는 주종관계의 구도로써, 이전과는 다른 계급에 대한 갈등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가정부 '어멈' 에 대한 '나'의 연민과 동정심, 즉 시혜적 민중관은 바로 서해의 의식의 흐름에 따른 반전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의식의 흐름이 식민지 현실과 맞물려 「이중(二重)」[31]에서는 배경을 일본으로 이동하여 일본인과의 직접적인 대결구도로 나타난다.

---

28) 朴英熙(1960) 「初創期의 文壇側面史(五)」, 「現代文学」, 1960. 1, p.276

29) 金基鎭(1927) 「文芸詩評」, 「朝鮮之光」, 1927. 2, p.97

30) 최서해(1928) 「葛藤」, 「신민」

31) 「二重」은 1927년 5월 「現代評論」에 발표하였으며, 이후 게재금지 되었으며, 동년 10월 일본어로 번역되어 잡지 「朝鮮人の言論と世相」에 실렸으나 검열에 의하여 상당부분 삭제된 듯함.

> 나는 일주일쯤 전에 사정이 있어서, 일본인 마을인 와카쿠사(若草)로 이사 왔다. 주위는 일본인들만 사는 호화주택가 인지라 이층에 올라가서 사방을 둘러보면 왠지 왕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든다. * * * 이웃에 일본인 노파가 살고 있는데, 우리 집으로 수돗물을 얻으러 온다.[32] (「二重」, pp.388~389)

일본인들만 사는 와카쿠사의 호화주택 촌에서, 왕이 된 듯한 기분을 느꼈다는 것은, 「갈등」에서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내 자신의 행동과 언어에서 귀족 냄새를 맡는다."는 심리와 상통하며, 여기서 더 나아가 「이중」을 통하여 일본인들이 사는 호화주택가에서 자신의 계급을 확인해 보고 싶은 심리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식민지 시기, 그것도 일본 땅에서 수도시설이 되어있는 집에서 문화생활을 누리는 주인공의 삶이나, '나'를 통하여 일본인 노파에게 '식수공급을 허락하는 것' 으로 확인된 계급은 경제적인 계급일 뿐이다. 주인공 내외의 공중목욕탕 입욕불가 사건은 민족적인 계급과 함께 본격적으로 민족적 갈등을 야기한다. 그들이 하층계급이라 여겼던 일본인 노파는 입욕이 허락되었는데 함께 간 아내는 입구에서부터 입욕을 거절당한 것이다. 분함을 참지 못해 울부짖는 아내를 보던 '나'는 홧김에 재차 목욕탕 입욕을 시도하지만, 그 이유는 일본인 친구의 입을 통하여 명확히 제시된다.

> 어이 자네! 안되네 안되. 자네는 목욕탕에 들어갈 수 없어. 일본 옷(하오리)에 게타를 신고가면 모를까, 흰옷 입은 사람은 들여보내주질 않아.[33] (「二重」, pp.389)

주인공 내외는 부르주아일지라도 식민지 조선인이기 때문에 공중목욕탕 입욕 그 자체를 거부당한 것이다. 여기에서 서해는 일본에서 조선인의 현실은 경제적인 계급에 앞서 민족적 차별을 인식하게 됨은 물론, 주인공 '나'를 통하여 스스

---

32) 僕は一週日程前に事情があつて、日本人村の若草町に移転てた来た。周囲は日本人の大廈高楼、自分も夕飯を食つて二階へ上つて四方を眺めると、何だか王様になつた様な気がする。* * * 隣に日本人の老婆が居つて、僕の家へ水道の水を貰ひに来る。

33) あゝ君、駄目だ駄目だヨボは風呂へ入れないよ、日本羽織に下駄を穿いて行けば入れるが、白衣の人は入れないよ。

로 상향조정하였던 계급이 민족문제에서만큼은 벗어날 수 없음을 재차 확인하게 된다.

1920년대 이러한 현실 속에서 갖은 고초를 겪으며 間島로 유랑생활을 체험한 서해는 중국인들에 의한 착취와 차별의 근본적인 원인과, 일본 땅에서의 경제적 계급에 앞선 민족적 차별에 대한 인식을 일제의 침략에 의하여 식민지가 된 이후, 민족적 주체성과 삶의 터전마저 잃은 데서 비롯되었다는 것에서 찾았던 것 같다.

비로소 식민치하에 놓여 있는 조선의 현실이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였음을 깨달은 서해는 중국인이나 일본인과의 관계에서 '지배 / 피지배' 의 이항대립구도를 벗어나려면 먼저 일제의 식민지배에서 벗어나야 하는, 즉 일제로부터의 해방이 우선적인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현실을 인식하기에 이른 것이다.

4.2. 민족적 저항의 표출양상

최서해의 여러 작품이 불특정 다수를 향한 테러나 살인 또는 방화와 같은 극단적 행동으로 결말지어짐으로 세계를 보는 작중인물의 시각이 개인적 감정의 차원을 벗어나지 못함 점은 선행 연구자들에 의하여 지적된 바 있다. 물론 주인공들의 그러한 행동은 극한적인 위기의식에서 기인하며, 이러한 극한적 위기의식은 최서해 문학의 주인공들이 행동으로 나서게 만드는 심리적 動因이 되기도 한다.

「기아와살륙」, 「홍염」, 「이중」은 모두 구조적으로는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심층구조에서는 동일한 내적 경험의 연속선상에서 갈등이 표출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서해의 이러한 소설작법은 선행연구자 곽근(1987)의 글에서 찾을 수 있다.

> 서해는 당시의 시대상이나 현실상만을 표출하기 위해서 작품을 썼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 자신이 고백하였듯이 내면 깊숙이 응어리진 그 무엇을 발산시키고 자신의 고통을 대변하는 수단으로서의 작품을 썼기 때문이다.[34]

34) 곽근(1987) 「서해문학의 이해를 위하여」, 『최서해전집(下)』, 문학과 지성사, p.439

이러한 상황에서 표출된, 최서해 소설의 주인공들은 모두 고립된 개인으로서 민족적 착취와 차별로 인하여 이중으로 고통 받고 있지만 식민지 현실에서 '도움을 청할 만한 곳'이나 '호소할 곳이 없다' 는 절박감에서 연유하고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작가 자신이 고립된 극한 상황에서 민족문제를 인식하게 되자 그 갈등은 작품 속에서 민족적 저항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 양상을 <표 2>로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다.

〈표 2〉 고립된 개인의 민족적 저항 표출 양상

작품명	주 인 공			민족적 저항의 표출양상	
	이름	계 급	직 업	대 상	방 법
기아와살륙	경수	무산자	막노동	가족, 불특정다수의 중국인, 중국경찰서	살인, 중국경찰서 습격
홍염	문서방	무산자	소작인	중국인 지주	방화, 살인
이중	나	유산자	지식인	불특정 일본인	대화단절, 수돗물공급 중단

이들 작품을 세심히 살펴보면 자신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근본원인을 식민체제의 사회구조에 의한 민족적 착취와 차별에서 찾고자 하였음이 주인공들의 행동을 통하여 표면으로 드러난다.

「기아와살륙」의 주인공이 처한 현실은 병든 아내에게 약 한 첩은커녕 죽 한 그릇도 먹이지 못하는 극한 궁핍상황이다. 게다가 일 년간의 머슴 계약서를 받고서야 침을 놔 주는 탐욕스런 의원과, 약은 지어주지 않고 돈 계산부터 하는 약국주인에게 적개심을 품고 있는 상황에서 어머니마저 중국인 지주의 개에 물려 처참하게 죽게 되자 분노는 극에 달한다. 도저히 타개할 수 없는 궁핍한 현실의 원인이 '되놈' 탓이 되면서 이야기는 민족적 차별문제로 불거지게 된다. 그동안 빠져나갈 틈이 없이 압박해 오는 중국인 및 중국경찰서에 대한 주인공의 복수심은 다음에 있을 파괴적인 행동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때문에 가족들을 모두 처치한 후 중국경찰서를 습격한 것은 우발적인 충동의 결과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의식에서 기인한 것이다. 요컨대 고립된 개인의 복수심에 의한 중국경찰서 습격은 소설 속 주인공의 현실적 여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민족적

저항이었던 셈인 것이다.

「홍염」은 갈등의 대상이 명확히 드러나 있고 그 갈등의 원인 또한 당시 농본주의적 계급인 지주와 소작인 관계로 설정되어 있어 「기아와살륙」이나 「이중」에서처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테러를 감행한 것에 비해 파괴적 행동의 대상 또한 명확하다.

이러한 서사의 축에 민족적 갈등을 접합시킨 「홍염」은 계급의 발견을 성취한, 즉 계급문제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잘 포착한 작품으로, 최서해 문학의 정점에 놓였다고 할 만하다. 「홍염」은 이러한 계급문제의 내적 연관성과 차별성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거기에 민족적 갈등을 잘 접합시킨 점에서 문서방의 살인행위에는 계급적 저항과 민족적 저항이 중첩되어 있다 할 수 있다. 민족의 삶을 끝없이 압박해 오던 중국인 지주를 죽이고 딸을 되찾은 것에서 문서방의 반전은 '하늘을 향해 세차게 타오르는 불' 과 함께 잠시나마 승리감을 안겨주기도 한다.

> 그 기쁨! 오오 그것은 딸을 안은 아버지의 기쁨만이 아니었다. 약하고 작기만 하다고 믿었던 자신의 힘이 철통같은 성벽을 무너뜨렸다는 걸 알았을 때, 그 때만큼 크나큰 기쁨이 이 세상 또 어디에 있을까. 불길은---그 붉은 불길은 의연히 모든 것을 태워버릴 것처럼 더욱 더 세차게 하늘을 향해 타오르고 있다.[35] (「紅焰」, p.268)

그러나 여기서 '크나큰 기쁨'으로 표현되는 승리감이란 말하자면 고립된 개인의 '한풀이'에 불과한 것 같다. 때문에 이러한 갈등의 해소방식은 자아와 외부세계와의 화해 차원에서 본다면 오히려 화해의 불가능성만을 확인시켜 줄 뿐이라 여겨진다.

「이중」에서는 아내가 자기 집으로 수돗물을 얻으러 다니는 일본인 노파와 함께 공중목욕탕에 갔는데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아내가 입욕을 거절당하면서 그

35) その喜び！おゝ、それは娘を抱いた父の喜びだけではない。弱く、小さいとのみ思ひ込んだ自分の力が鉄壁を打ち崩したと知つたとき、そのときの喜びほど大きな喜びがこの世のどこにあらう。焔は——その紅い焔は、すべてを焼き尽くさずにおかぬばかり、物凄くなほも空に燃え上つてゐる。

갈등은 시작된다. 억울해 하는 아내의 복수라도 하려는 듯이 기세 좋게 공중목욕탕에 들어가려 했으나 그 자신 역시 보기 좋게 입욕을 거절당한다. 이를 계기로 그 갈등은 민족문제로 확대된다. "중(僧)이 미우면 걸치고 있는 가사(袈裟)까지 미워지는" 격으로 물을 얻으러 오는 이웃 노파가 일본인이기 때문에 인사를 거절함은 물론, 결국 수돗물 공급마저 끊어 버리는 것으로 표출된다.

> 우리들은 이중의 비애를 갖고 있다. 조선인이기 때문에 종업원 까지도 그들은 나에게 입욕을 거부한다. <중략> 이 비애는 참을 수 없다. 중(僧)이 미우면 걸치고 있는 가사(袈裟)까지 미워지는 것인지, 그날 이후 이웃 노파까지도 미워서, 노파가 물을 얻으러 와서 인사하면, 나도 "안녕하세요" 라 화답했던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물주는 것을 거절했다.[36] (「二重」, p.390)

내면의 갈등 표출에 있어서도 「이중」에서 보여주는 상류층 지식인의 경우는 이전의 작품과는 확연히 구분된다.

> …… 이 가슴속에 쌓이고 쌓여서 혈관과 세포에 깊이깊이 침투해가는 이중의 비애! 아아 '나'는 그 커져만 갈 미래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다.[37] (「二重」, p.391)

이처럼 일본인과의 직접적인 대결에 있어서는 그 울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보다는 가슴속에 겹겹이 쌓아두는 것에서 이전의 작품과 구분된다. 식민지 하층민의 내면갈등이 테러나 방화, 살인으로 결말이 났던 「기아와살륙」, 「홍염」에 비해, 일본을 배경으로 한 지식인 유산자의 내면갈등을 묘사한 「이중」에서는 그 갈등을 미래에 풀어야 할 숙제로 남겨두고 있는 것이다.

서해는 작품 속에서나마 끊임없이 이러한 모순된 사회구조와 함께 민족의 문제를 이야기 하고 싶었고, 또 여기에 민족적인 저항을 담으려 하였다. 그러나 서해의 소설은 대부분 개인의 갈등이 개인이나 불특정 다수를 통하여 해소시키

---

36) 我等は二重の悲哀を持つて居る。朝鮮人だから、ヨボだからと言つて彼等は吾人に入浴を拒む。<略> 此の悲哀は忍ぶ事が出来ぬ。それから以来隣の老婆が憎くなつた、坊主が憎くければ袈裟まで憎して、老婆が今晩はと云つて、水を貰ひに来たら、今晩はと答へて居つた吾人は、無答の侭水を給与することを拒むでやつた。

37) …….此の胸の中に積り積つた血管や細胞に深く深く且重く潜み浸み込んで行く二重の悲哀！おゝ吾人はその大きくなる将来を静かに眺めて居る。

려 하는데서 문제점이 있다 할 것이다. 작품 속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구조의 근본적인 문제의 인식에 도달하였음에도 그 갈등의 대상을 사회적인 측면으로 나타내지 못한 점은 작가의 협소한 세계관에 기인한다 할 것이다. 서해의 이러한 세계관은 작품 안에서 의식과 그에 따른 행동의 제약을 초래하게 되어, 결국 주인공 자신과 주변인물을 파국으로 끌고 가는 반동인물로서의 개인에만 머물게 할 뿐, 대 사회적인 진보를 더욱 어렵게 한다.

이는 작가의 의식이 민족의 발견에 도달하기는 하였으나 체험적인 면에 치우친 나머지 세계를 보는 작중인물의 시각이 개인적 감정의 차원에만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러한 세계관은 어렵사리 찾아낸 민족에 대한 의식을 '민족 대 민족'의 문제로까지 승화시키지 못하고, 마침내 시대와 민족의 비극을 그의 소설 속에서 절대적인 것으로만 받아들이고 있는 작가의 한계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하겠다.

5. 결론

1901년 함경북도 성진에서 태어나 春園 이광수의 추천으로 문단에 등단한 서해는 동 시대 다른 작가들에 비해 작품 속 등장인물들이 겪는 아픔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소재의 한계성과 표현기교의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그 리얼리즘의 형상화에 있어서의 독특함으로 문단에 파란을 일으키며, 신경향파 문학의 독보적인 존재로서 자리매김 된다.

본 텍스트인 일본어소설 「기아와살륙」, 「홍염」, 그리고 「이중」 은 원작자가 아닌 타인에 의하여 일본어로 번역되어 일본문단에 소개된 것으로, 일제의 식민지 정책으로 인한 조선민중의 실상과 원작자 최서해의 사실성 있는 항거 또는 투쟁이 일본어권 독자들에게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하겠으나 검열에 의하여 중요한 부분이 복자처리 되거나 삭제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당시 호구지책을 위한 이국땅에서의 하층민의 전형적인 상황을 묘사한 「기아와살륙」, 「홍염」, 그리고 그간의 작품과는 달리 획기적인 내적변화를 보여준 「이

중」을 세심히 살펴보면, 경제적인 면에 비례하여 작가의 의식이 변화되어 계급의 반전으로 나타나고, 또 배경이나 의식의 변화에 따라 계급적, 민족적 저항의 표출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서해가 끊임없이 '착취자 대 피착취자', '유산자 대 무산자'의 구도인 계급의 문제와 '피식민국 대 식민국', '피식민자 대 식민자'의 이항대립 구조인 민족의 문제를 이야기 하고 싶었으며, 여기에 민족적인 저항을 담아내려 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그러나 최서해의 소설은 대부분 극한 상황에 처한 폐쇄적인 개인이 그 갈등을 자신에게 압박을 가한 다른 개인이나, 또는 불특정 다수를 통하여 해소시키려 하는데서 문제성이 드러난다. 이는 서해가 체험적인 면에 치우친 나머지 사회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 인식에 도달하였음에도 그 갈등의 대상을 사회적인 측면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협소한 세계관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세계관은 작품 안에서 의식과 그에 따른 행동의 제약을 초래하는 결과로 나타나며, 결국 주인공 자신과 주변인물을 파국으로 끌고 가는 반동인물로서의 개인에만 머물게 하여, 대 사회적인 진보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어렵사리 찾아낸 민족에 대한 의식을 '민족 대 민족'의 문제로까지 승화시키지 못하고, 시대와 민족의 비극을 그의 소설 속에서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작가의 한계성에서 기인한다 하겠다.

참고문헌

곽근(1987)「서해문학의 이해를 위하여」『최서해전집(下)』, 문학과 지성사, p.439
김기림(1931)「독서실」『동광』, 1932.10
金基鎭(1927)「文芸詩評」『조선지광』, 1927. 2, p.97
김순전(1998)『한일근대소설의 비교문학적 연구』, 태학사, p.256
大村益夫・布袋敏博(2004)『近代朝鮮文学日本語作品集』(1901-1938) 創作篇
박영석(1972)「日帝下의 在満韓人 迫害問題」「아세아연구」,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p.220
朴英熙(1960)「初創期의 文壇側面史(五)」「現代文学」, 1960. 1, p.276
松村高夫(1972)「在満朝鮮人移民政策の形成」「日本帝国主義下の満洲」、満洲史研究会編、東京、pp.226-228

李求弘(1979)『韓国移民史』, 中央日報 · 東洋放送, pp.21-22
이원재(1966)「韓国에 있어서의 労動運動」「창작과 비평」 가을호, 交友出版社, p.462
李勳求(1932)『満洲와 朝鮮人』, 平壌, pp.241-243
임종국(1974)『韓国文学의 社会史』, 정음사, pp.128-129
최서해(1991)「葛藤」,『최서해단편소설집』, 문예출판사(평양), pp.250-279
———(1991)「故国」,『최서해단편소설집』, 문예출판사(평양), pp.26-30
———(1991)「飢餓와殺戮」,『최서해단편소설집』, 문예출판사(평양), pp.71-82
———(1991)「탈출기」,『최서해단편소설집』, 문예출판사(평양), pp.49-57
———(1991)「紅艶」,『최서해단편소설집』, 문예출판사(평양), pp.233-249
———(1996)「해돋이」,『한국현대대표소설선 2』, 창작과비평사, p.38
최학송(1925)「?! ?! ?!」,「朝鮮文壇」, 1925. 4, p.19
하정일(2005)「민족과 계급의 변증법」「한국 근대문학연구」 제11호, 한국근대문학회 편, p.223-223

≪중외일보≫「放逐되는 민중의 비참상」, 1926.3.24일자

❖ 투고일 : 2009. 6. 30
❖ 심사일 : 2009. 7. 16
❖ 심사완료일 : 2009. 7. 28